

청소년의 성격, 애착, 온라인 자기개방,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간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 분석

남 순 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 6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애착이 가족과 온라인 친구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때, 가까운 대상과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매개효과를 종단 연구한 것이다. 조사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였고, 평균 6개월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연구대상자를 종단추적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A영역(가까운 대상)의 경우, 청소년의 개방성은 가족친밀감 변화에 직접효과와 온라인 자기개방의 종단적 변화에 따른 간접효과를 동시에 보였고,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에는 매개효과만 보였다. 애착불안은 친한 친구와 온라인 자기개방이 증가할수록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반면, 애착회피는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에 부정적인 직접효과만 보였다. C영역(단순지인)의 경우, 온라인 자기개방이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신경성이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관계의 질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성실성은 온라인 관계의 질 변화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애착회피는 가족친밀감 변화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기 또래와의 강한 유대감이 가족관계를 약화시켜 청소년 가족문제를 초래한다는 기존 관점과 달리, 온라인에서 청소년의 활발한 자기개방이 가족과 온라인 친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온라인 의사소통이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잠재성장모형, 청소년 가족, 성격 5요인, 애착, 온라인 자기개방, 가족친밀감,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종단연구

[†] 교신저자: 남순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shnam1227@nate.com

서론

최근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정보기기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점차 인간의 대인관계는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활동의 지평을 넓혀나가고 있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눈부신 발전으로 온라인상에서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가 중요해짐에 따라 오프라인 공간과의 경계가 무너지고, 온라인 공간은 이제 또 하나의 다른 현실공간으로서 다양한 매개체를 통한 대인간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있다(전유희, 구철모, 정남호, 이대용, 2012). 이런 변화는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활발한 SNS이용은 가족원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줌으로써 긍정적인 영향(김미숙, 장화경, 홍미, 2006)을 미칠 수 있는 반면에,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와해하고 가족의 단절이라는 가족의 안정성을 침해한다(차성란, 문숙재, 정영금, 정지영, 2003)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가족관계는 인간관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로써, 독특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다(유영주, 김순옥, 김경신, 2008). 가족관계는 가족원이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며, 가족원의 성격, 태도 및 행동은 물론, 가족구조와 가족기능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최근 기존의 오프라인 장면에서 행해졌던 대인관계 연구들이 온라인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온라인 대인관계 연구들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가족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김미숙 외, 2006; 김종길, 박수호, 2010; 이해영, 이어봉, 2001)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인관계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가장 1차적인 관계형성이 이루어지는 가족의 온라인 상호작용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전 생애발달단계에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여야 하는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가족생애주기에서 가족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가족체계와 외부세계를 빠르게 오고가면서 외부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가족에 대한 인식이 가장 희박한 시기이다. 동시에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라는 발달과업 수행과 또래 친구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로 인해 부모와 잦은 갈등을 빚기도 하기 때문에, 가족치료장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내담자 가족유형이다.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SNS 이용자 10명 중 9명(91.4%)이 SNS를 통해 '친구, 선·후배'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의 인터넷 이용률이 99.9%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청소년은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영역을 확고히 하고 외부세계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위해 온라인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은 온라인에서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을 지지보다는 하나의 간섭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Ledbetter, Heiss, Sibal, Lev, Battle-Fisher, & Shubert, 2010). 반면에 차성란(2005)과 이해영 외(2001)은 가족 간의 온라인 이용이 가족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온라인게임을 많이 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온라인게임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족관계와 친구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관계의 질에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오히려 온라인

게임에 대한 부모의 이해는 자신감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의 활발한 자기개방을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청소년기 개인의 발달과업을 달성해나가는 건 강한 발달특성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가족관계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이 가족친밀감과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2년 정도 종단 추적해봄으로써, 가족상호작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격 특성과 애착이 청소년의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둘째, 청소년의 성격특성, 애착 및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이 가족친밀감과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성격의 5요인

가족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개인의 성격특성을 꼽을 수 있다. 가족원 개개인의 성격특성은 상대적으로 고정적이고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Costa, McCrae, & Zonderman, 1987), 지속적으로 가족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영향

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족관계와 친구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최근 많은 성격이론가들은 개인의 성격특성이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성격의 '5요인 모형(Big Five Model)'에 동의하고 있다(Goldberg, 1990). 연구자들이 성격모델 중에서 성격 5요인 모델을 가장 정설로 받아들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Larson & Buss, 2010). 첫째, 성격은 사람의 생애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질을 지닌다. 성격 5요인 모델은 나이에 따라 값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전체 집단의 분포에서 자신의 특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의미하는 순위순서가 매우 일정한 양상을 띠는 안정성을 보인다(Robert & Del Vecchio, 2000). 둘째, 성격은 특정한 문화의 영향을 받는 특성이 아닌 보편적인 특성이다. 이 모델이 집단주의 문화권보다는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더 잘 맞아떨어진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권에 잘 맞아떨어진다는 보편성을 지닌다(Triandis & Suh, 2002).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분석한 성격 5요인 모형은 성격의 구조가 5개 주요특성, 즉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Costa & McCrae, 1980, 1992; Pervin, Daniel, Oliver, 2005). 개방성(Openness)은 새로운 것이나 자신과 다른 생각을 잘 수용하는 특질로, 높을수록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나타내며, 낮을수록 관습적이고 실질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사회적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나타낸다. 성실성이 높을수록 계획된 행동을 잘 수행하고 매사를 잘 조직화하는 반면, 낮을수록 느슨하고 게으른 모습을 보인다. 외향성(Extraversion)은 대인관계,

또는 자극에 대한 추구와 관련된 특질로써, 높을수록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낮을수록 조용하고 사색적인 특징을 지닌다. 친화성(Agreeableness)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친화성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협조적이고 낮을수록 비협조적인 성향을 보인다. 신경성(Neuroticism)은 정서적 불안정, 민감성, 불안감, 피로감, 긴장의 정도를 나타내는 특질로, 높을수록 걱정이 많고 예민한 경향을 나타내며, 낮을수록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자기만족적이다.

박현숙(2011)은 청소년의 가족의사소통에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독립적-책임적, 동정적-수용적, 사교적-우호적, 과시적-자기도취적인 성향을 보이며, 폐쇄형 의사소통을 보일수록 반항적, 불신적인 성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조영란(2005)은 청소년의 대인관계에서 신경증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및 성실성은 정적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에서 자기노출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Pederson과 Hisbee(1968)는 내외향성 개인특성에 따른 자기개방 행동양상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오프라인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에 비해 자기노출을 더 많이 하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자기노출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임평규(2001)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Jacobson(1999)은 온라인에서 자기표현이 활발한 이유를 온라인의 가상적 공간이 전자적 자기(electronic self)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청소년은 청소년기 발달특징인 자아중심성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상상의 청중을

더 활발히 만들어 낼 수 있다(Alberts, Elkind, & Ginsberg, 2007).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전자적 자기가 온라인에서 자기개방을 활발히 작동시키는 경향이 있고, 청소년의 성격특성은 온라인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격 5요인에 따르면, 개인의 타고난 기본적인 성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습관, 태도, 능력, 역할, 관계와 같은 형식으로 개인의 독특한 적응양식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McCrae & Costa, 1996, 1999). 개인의 성격특성은 새로운 역할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Mortimer, Lorence, & Kumka, 1986), 가족친밀감과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Rudolph, Hammen, Burge, Lindberg, Herzberg, & Daley, 2000). 선행연구들은 성격특성과 행복간에는 강한 관련이 있으며(Diener & Lucas, 1999), 특히 외향성과 신경성이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구본용, 유제민, 2005; 서경현, 김정호, 유제민, 2009; Anderson, John, Keltner, & Kring, 2001; Belsky, Jaffee, Caspi, Moffitt, & Silver, 2003). 성격특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White, Hendrick과 Hendrick (2004)은 신경성은 주관적인 관계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은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Rice와 Markey(2008)는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상호작용과 면대면 상호작용에서 성격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 외향성과 낮은 신경성은 온라인 상호작용과 오프라인 상호작용을 모두 촉진함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덜 유발하는 반면, 내향성과 높은 신경성은 온라인 상호작용에서보다 면대면 오프라인 상호작용에서 더 불안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

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이제 오프라인 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온라인 대인관계로 그 연구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연구들에서 성격특성과 가족친밀감과 친구관계의 질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선행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성격과 이성관계 만족(White, Hendrick, & Hendrick, 2004) 및 행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연구들(구본용, 유제민, 2005; 서경현, 김정호, 유제민, 2009; Anderson, John, Keltner, & Krings, 2001; Belsky, Jaffee, Caspi, Moffitt, & Silver, 2003; Diener & Lucas, 1999)을 통해서 개인의 성격특성이 친구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서 가족친밀감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성격 5요인 중에서 외향성과 신경성은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고, 가족친밀감과 친구관계의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관계의 친밀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지는 못했다. 온라인 가상공간은 익명성으로 인하여 낯선 타인과의 교류가 활발한 곳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실제로 가족과 같은 친밀한 대상과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낯선 타인과의 자기개방의 차이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격특성이 온라인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대상과 단순지인과 같이 친밀도가 다른 자기개방에서 관계의 질에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지 그 차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격특성이 가족친밀감과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의 차이가 가족친밀감과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모두 검증해보고자 한다.

애착

애착은 인간행동, 특히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애착이론은 양육자와 유아의 애착관계에 치중함으로써 두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유계숙, 1995). 첫째, 유아기나 아동기 이후의 발달단계에서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유지되는지 알 수 없으며, 둘째, 부모자녀 간 쌍방향 애착관계보다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일방적 애착형성에 초점을 둬으로써 부모자녀 간 애착의 차이나 상호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애착이론은 가족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쳐 발달하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가족발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현재 애착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성인의 친밀한 관계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애착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써(Bowlby, 1976)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9; Baumeister & Leary, 1995; Mikulincer, 1998).

Bowlby(1953, 1976)는 애착이 생애 초기에 형성되고 전 생애에 걸쳐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애착유형을 나누는 초기의 연구에서 Ainsworth, Blehar, Waters와 Wall(1979)는 아동이 낯선 상황에서 애착대상과 분리되었을 때의 반응을 바탕으로 애착을 안정(secure), 회피(avoidant), 불안-양가(anxious-ambivalent) 유형으로 분류하였

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 내적 작동모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질적 범주로 애착을 측정하고, 자기와 타인에 대해 긍정적 표상을 지닌 안정형,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거부형,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몰두형,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두려움형의 4가지 유형으로 애착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Fraley와 Waller(1998)는 애착유형보다 두 개의 연속적인 차원으로 애착을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에 Brennan, Clark과 Shaver(1998)는 애착을 불안과 회피의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했다. 애착불안은 애착대상이 필요할 때 곁에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애착 대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버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와 관련이 있다. 반면 애착회피는 관계에 대한 불신과 의존성으로 인해 독립성이 침해될까 두려워하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게 만든다.

이처럼 애착에 따라 애착대상에게 느끼는 감정과 관계에 대한 전략이 달라지는 것은 애착이 가족원에 대한 관계동기, 가족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 가족관계에서의 행동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족친밀감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idwell, Reis와 Shaver(1996)의 연구는 애착에 따라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감, 긍정/부정 정서, 상대에 따라 접촉하는 비중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애착회피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애착이나 애착불안에 비해 관계에서 친밀감을 더 적게 경험하고, 관계를 촉진하려는 행동을 더 적게 했으며 높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의 경우, 애착회피에 비해 관

계에서 더 높은 긍정 정서와 친밀감을 경험했으며, 관계 촉진 행동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정서의 기복이 애착회피와 안정적 애착에 비해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애착불안인 사람들이 상대가 주는 단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박성복, 황하성, 2007; Laurenceau, Barrett, & Pietromonaco, 1998; Manne et al., 2004; Sprecher & Hendrick, 2004)은 애착이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을 촉진시켜 가족친밀감과 친구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박선주(2010), Keelan, Dion 및 Dion (1998), Mikulincer와 Nachshon(1991)는 애착과 자기개방간의 연구에서, 안정애착과 애착불안은 자기개방을 높이는 반면, 애착회피는 자기개방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청소년의 친밀도에 따른 온라인 자기개방과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에 미치는 경로는 다를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애착불안이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때,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고, 애착회피는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애착이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연구해왔지만(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9; Baumeister & Leary, 1995; Mikulincer, 1998), 선행연구들은 전통적인 대인관계 상황, 즉 면대면 의사소통 상황만을 살펴봤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애착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으

로 보인다. 애착이 온라인에서는 관계 행동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며, 이것이 가족친밀감과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가족관계와 친구관계유지 행동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관계유지행동 중 자기개방(self-disclosure)이 친밀감 발달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들(박성복, 황하성, 2007; Laurenceau, Barrett, & Pietromonaco, 1998; Manne et al., 2004; Sprecher & Hendrick, 2004)을 토대로, 청소년의 애착이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을 촉진시켜 가족친밀감과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과 가족친밀감과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에 미치는 경로는 다를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는데,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불안은 관계유지행동, 즉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을 촉진시켜 가족친밀감과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를 증진시키는 반면, 애착회피는 가족친밀감과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개방

자기개방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노출하는 의사소통유형으로써(DeVito, 2005), 한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과 같은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이다(이재룡, 1996; 남순현, 권정혜, 2015).

온라인 의사소통은 개인의 생각이나 언어적 표현을 통해 그대로 혹은 과장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

는 것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사이버공간의 특징인 익명성과 비가시성은 온라인에서 자신을 감추려는 욕망과 상대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은 욕망을 동시에 표출하는 특징을 지닌다.

온라인에서 자기개방은 자신의 존재를 사이버공간 안에 표현함으로써 온라인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갖고자 하는 하나의 표현일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공간을 통한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는 과정은 자아인식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Alberts, Elkind, & Ginsberg, 2007). Elkind(1967)는 이와 같은 청소년기 심리적 특성을 자아중심성(egocentrism)으로 규정하고, 이를 스스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 심리적 경험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청소년의 자아중심성 중에서 '상상의 청중' 심리(Galanaki, 2012)는 온라인에서 자기개방을 더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은 상대에 대해 상호간의 자기개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경험된다(권석만, 2004). 사이버공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익명으로 인한 온라인 의사소통은 비언어적 메시지가 부족하기 때문에(신현진, 2005), 자신이 상대에게 노출한 만큼만 상대방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같은 긴밀한 유대관계뿐만 아니라 낯선 타인과의 경우에는 특히, 자기개방이 친밀감을 촉진시키는 유용한 관계유지 행동이 된다. Ko와 Kuo(2009)는 온라인 자기개방이 사회적 자본의 하위 유형인 사회적 통합, 사회적 친밀감,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모형을 확인하였다. 즉, 온라인상에서의 자기개방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탐색한 Lee, Lee와 Kwon(2011)의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과 친구관

계에서 자기개방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기개방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발달특성인 자아중심성의 하나로써 상상의 청중은 온라인 자기개방을 활성화시키며,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은 가족 친밀감과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 성격특성(박현숙, 2011; 임평규, 2001; 조영란, 2005; Pederson & Hisbee, 1968)과 애착(박선주, 2010; Keelan, Dion, & Dion, 1998; Mikulincer & Nachshon, 1991; Tidwell, Reis, & Shaver, 1996)이 온라인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고, 온라인 자기개방이 가족친밀감과 친구관계의 질을 증진시킨다(남순현, 권정혜, 2015; Ko & Kuo, 2009; Lee, Lee, & Kwon, 2011)는 각각의 연구결과들만 보고하고 있다. 이는 성격특성과 애착이 가족친밀감과 친구관계의 질을 변화시킬 때,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의 매개효과가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발달특성으로 인한 청소년의 활발한 온라인 자기개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한편, 사이버공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익명의 온라인 의사소통은 비언어적 메시지 부족이라는 제한점 때문에(신현진, 2005), 자신이 상대방에게 노출한 만큼만 상대방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가까운 대상과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단순지인에게 자신을 공개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온라인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온라인 자기개방이 실제로 친밀도에 따른 영역의 관계의 질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온라인에서 또래와의 강한 유대가 가족친밀감을 저해하는지 혹은 촉진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친밀감과 친구관계의 질

가족친밀감은 가족 간의 가깝고 밀접한 느낌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원들 간에 친밀감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초래하거나 심한 경우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낳기도 한다(Patton & Waring, 1984). 따라서 가족관계에서 갈등이 적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고, 가족 안에서 적응을 잘하며, 가족친밀감이 높다(Knudson, Sommers, & Golding, 1980). 가족 내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으며(한주리, 허경호, 2005), 가족원들 간의 상호접촉이 많을수록 친밀감과 가족관계의 질이 높다(남순현, 2001). 이는 온라인 가족관계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즉, 온라인 자기개방은 온라인 가족접촉빈도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친밀감을 증진시킨다(남순현, 권정혜, 2015).

이러한 대인관계유지행동은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친구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친구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Hudson, Acklin과 Bartosh(1980)는 관계의 질은 대인관계에서 야기되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의 심각성 정도와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온라인 대인관계에 관심을 갖고 행해진 많은 연구들(박성복, 황하성, 2007; Ko & Kuo, 2009; Laurenceau, Barrett, & Pietromonaco, 1998; Lee, Lee, & Kwon, 2011; Manne et al., 2004; Sprecher & Hendrick, 2004)에서는 온라인 자기개방이 대인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발달특징인 자아중심성 중 상상의 청중이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가정 하에, 청소년이 심리적 독립성과 자아정체감이란 발달과업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기 가족문제를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온라인 상호작용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종단적인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이 가족과 친구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2년간 종단 추적해봄으로써, 청소년기 발달단계에 따른 가족문제를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가정을 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애착은 가족친밀감과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은 가족친밀감과 친구관계의 질의 변

화를 증진시킬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애착은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가족친밀감과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족친밀감과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를 종단추적한 후,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고,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청소년의 성격특성 중에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과 친화성은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의 초기치와 변화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신경성은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의 초기치와 변화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청소년의 성격특성 중에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과 친화성은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신경성은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량에 부적인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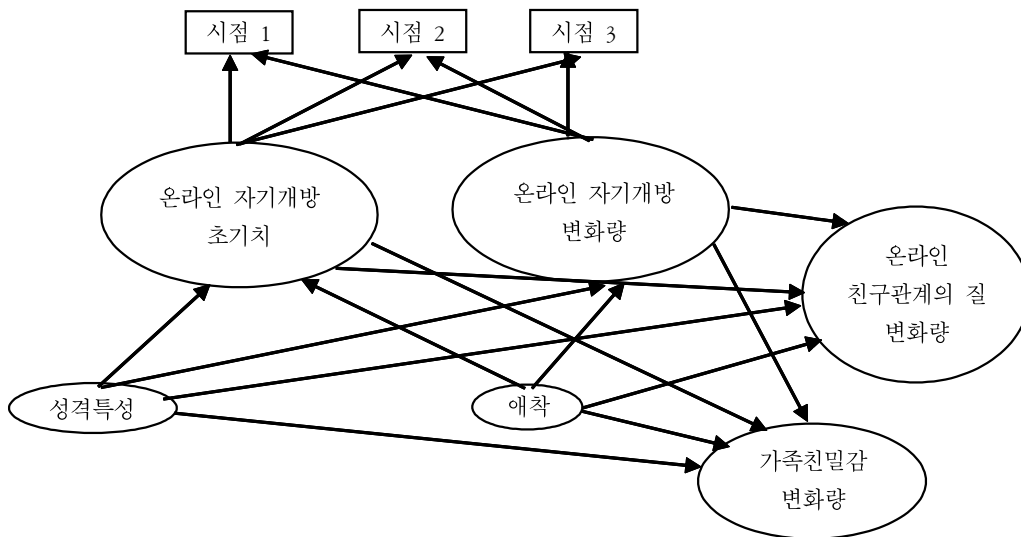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가설 모형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와 변화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5.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는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6.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은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7. 청소년의 성격특성이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량에 영향을 미칠 때, 친밀도에 따른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와 변화량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8. 청소년의 애착이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량에 영향을 미칠 때, 친밀도에 따른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와 변화량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NS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 650명으로 2년간 종단추적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서울경기지역 2개교(192명, 27.7%), 전라도지역 1개교(370명, 53.4%), 충청도지역 1개교(131명, 18.9%)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 임의표본 표집¹⁾하였다. 연구대상자

의 평균연령은 15.86세(SD=0.55)였고, 남학생은 315명(48.5%), 여학생은 317명(48.8%)(무응답 17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인터넷 사용기간(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 기간)은 5-7년이 158명(22.8%), 7년 이상이 458명(66.1%)이었으며, 인터넷 사용빈도는 하루 중 수시로 127명(18.3%), 하루 1회 이상 259명(37.4%), 2-3일 1회 이상 171명(24.7%), 1주일 1회 이상 114명(16.5%)이었고, 인터넷 사용시간은 1-3시간 정도가 391명(56.4%)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온라인 가족접촉비율(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과의 온라인 접촉비중)은 평균 15.02%(SD=23.02)였고, 가까운 대상과 온라인 접촉비율(청소년이 지각하는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접촉비중)은 평균 26.98%(SD=31.64)였으며, 단순지인과 온라인 접촉하는 비율(청소년이 지각하는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접촉비중)은 32.68%(SD=33.63)였다. 연구대상자가 가족과 온라인에서 접촉하는 빈도는 하루에 1-2회(149명, 21.5%)와 일주일에 1-2회(149명, 21.5%)가 가장 많았고, 가족과 온라인 접촉을 하지 않는 연구대상자도 32.3%(224명)를 차지했다. 연구대상자가 가까운 대상과 온라인에서 접촉하는 빈도는 일주일에 1-2회(224명, 32.3%), 하루에 1-2회(137명, 19.8%), 수시로(119명, 17.2%) 순으로 나타났고, 단순지인과의 온라인에서 접촉하는 빈도는 한 달에 1-2회(160명, 23.1%), 일주일에 1-2회(22.8%) 순이었으며, 접촉하지 않는다고도 27.7%(192명)로 높았

1)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온라인 대인관계 연구팀(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1-330-B00240), 책임연구자 권정혜 교수의 표본을 사용한 것임.

다. 연구대상자가 주로 접촉하는 온라인 주 매체로는 메신저, 카카오톡, 버디버디 등이 가장 많았는데, 가까운 대상 63.08%, 가족 63.02%, 단순지인 50.09%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블로그, 마이스페이스, 미니홈피 등으로 단순지인 18.76%, 가까운 대상 18.58%, 가족 10.81% 등과 접촉을 많이 하였으며, 온라인 카페나 동호회 순으로 나타났다(가족, 5.66%; 가까운 대상 7.94%; 단순지인, 10.2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지역의 중학교 1학년(14세)과 고등학교 1학년생(17세)을 대상으로 1차 설문을 실시하고, 추후 한 학기 단위로 2차와 3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와 동의서는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와 동의서는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거나 연구참여자가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방식으로 수령하였다. 학기단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6개월 간격으로 1, 2, 3차 설문을 진행하였다. 시점 1에서 청소년의 성격특성, 애착, 가까운 대상과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가족친밀감, 가까운 대상과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을 시점 1에서 측정하였고, 시점 3에서 가족친밀감, 가까운 대상과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시점 1, 2, 3에서는 가까운 대상과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를 모두 측정하였다.

설문의 조사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였고, 평균 6개월 간격으로 학기시작과 끝 무렵 2011년 12월(시점 1)을 시작으로 2012년 9월(시점 2), 2013년 2월(시점 3)에 걸쳐 3차례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900부의 설

문지를 수합하였으나 미응답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1, 2, 3차 설문과정에서 중도 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650부의 설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성격특성

본 연구에서 성격특성은 Big Five Model에 기초하여 Rammstedt(2007)가 개발한 BFI-10(The 10-Item Big Five Inventory)을 사용하였다. BFI-10척도는 총 10개 문항으로 각각 2개 문항씩 개방성(예,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다'), 성실성(예, '신뢰할 수 있다'), 외향성(예, '외향적이다'), 친화성(예, '동정심이 많다'), 신경성(예, '근심걱정이 많다')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식 7점 척도이다. 5개 하위척도 모두 부정적으로 기술된 한 개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각 하위척도에서 받을 수 있는 전체 점수의 범위는 2-14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 척도의 성격특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축형 BFI-10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이었고, 문항간 내적 일치도는 외향성에서 .89, 신경성에서 .86, 성실성에서 .82, 친화성에서 .74, 개방성에서 .79였다(Rammstedt & John, 2007). 본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개방성에서 .87, 성실성에서 .62, 외향성에서 .76, 친화성에서 .90, 신경성에서 .76이었다.

애착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Fraley 등(2000)이 개발한 친밀관계경험 검사 개정판(ECR-R)을 김성현(2004)이 번안하여 타당화 작업을 한 후, 박지선(2008)이 청소년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리커트식 7점 척도로 총 36문항이다. 18문항은 애착불안(예,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을 측정하고, 18문항은 애착회피(예,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편이다')를 측정한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각각에서 18-12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차원의 특성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한국판 친밀관계경험검사 개정판(ECR-R)은 ECR-R 원본이 가정하고 있는 불안-회피 양자 요인 구조모형이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였고, 애착회피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였다(김성현, 2004). 본 연구에서 애착불안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91$, 애착회피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83$ 이었다.

온라인 자기개방

온라인 자기개방은 Peter와 Valkenburg(200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Zhou 등(2005)은 타인과의 자기개방에서 대인관계영역을 지지집단(support group), 동감집단(sympathy group), 능동 네트워크집단(active network group)의 3개 네트워크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계의 강도와 친밀도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Zhou 등(2005)의 구분에 근거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온라인 대인관계를 친밀도에 따라 가까운 대상과 단순지인으로 구분하게 한 후, 본 연구에서 편의상 가까운 대상을 A영역, 단순지인을 C영역으로 청소년의 온라인 자기개방 영역을 분류하였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4-3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온라인 개방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개방척도는 관심 폭 4개 문항(예, '다양한 주제를 쉽게 이야기한다')과 관계의 깊이 5개 문항(예, '비밀을 쉽게 이야기한다')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리커트식 4점 척도이다. Peter와 Valkenburg(2006)의 연구에서 관심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2$, 관계깊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3$ 이었다. 본 연구에서 A영역(가까운 대상)의 온라인 자기개방은 Cronbach's $\alpha=.88$, C영역(단순지인)의 온라인 자기개방은 Cronbach's $\alpha=.91$ 의 신뢰도를 보였다.

가족친밀감

Furman과 Buhrmester(1985)가 개발한 관계질척도를 한중혜(1994)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 중 친밀감 하위척도 3개 문항을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예, '가족에게 나에 대한 일에 대해 얼마나 말합니까?'). 가족친밀감 척도는 리커트식 4점 척도이며, 전체 점수의 범위는 4-12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친밀감이 높은 것이다. Furman과 Buhrmester(1985)의 연구에서 친밀감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80$ 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75$ 였다.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본 연구에서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은 Furman과 Buhrmester(1985)가 개발한 관계질척도를 한중혜(1994)가 번안한 27문항을 사용하였다.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척도(예, '상대방과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냅니까?')는 리커트식 4점 척도로 청소년의 온라인 A영역(가까운 대상)에서 친구관계의 질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93$, 온라인 C영역(단순지인)에서

의 친구관계의 질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AMOS 20.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 모형의 종단적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은 3회 혹은 그 이상의 종단자료나 패널자료에 대하여 개인의 변화량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 중 하나이다(Duncan, Duncan, & Stryker, 2006).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초기치와 변화량을 잠재변수로 추정한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면 변화에서 개인차와 유의미한 정도, 개인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한 변수에서 다른 변수로의 변화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Duncan, Duncan, & Alpert, 1999).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가설모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외변인들, 즉 연령, 성별, 경제수준, 인터넷 이용기간, 사용빈도 및 사용시간 등을 통제한 후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도탈락자를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중도탈락자와 연구대상자 간의 성격특성과 애착의 평균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잠재성장모형 검증시, 잠재변인에 해당하는 측정변인의 수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문항 꾸러미 기법(Item parceling)을 사용하여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 변수를 조정하였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본 연구에서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Kline(2005)과 홍세희(2000)가 제안한 절대 적합도지수 χ^2 값, RMSEA와 상대 적합도지수 CFI, TLI,

NFI를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시한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표준오차를 수정하여 편향(왜곡)을 수정한 신뢰구간을 구하여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결 과

정상성 및 상관분석

연구에서 탐색할 변인들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 1 하단에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았고, 분포의 정상성을 가정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성격특성, 애착, A영역(가까운 대상)과 C영역(단순지인) 온라인 자기개방, 가족친밀감 및 온라인 A영역(가까운 대상)과 C영역(단순지인) 친구관계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 상단과 같다.

청소년의 성격특성은 외향성만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시점 1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12, p<.01$, 가족친밀감과 가까운 대상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19, r=.18, p<.01$. 청소년의 애착회피는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시점 1, 2, 3에서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r=-.20, r=-.19, r=-.21, p<.01$, 애착불안은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시점 1에서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11, p<.01$. 청소년의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시점 2와 3은 가족친밀감에 유의한 정적

표 1. 측정변인들의 상관 및 기술통계치

	성격부성				예측						온라인 자기개방			온라인 친구 관계 질			
	개발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	불안	회피	A영역 (가까운 대상)			C영역 (단순자인)			가족 친밀감	A	C	
								시점 1	시점 2	시점 3	시점 1	시점 2	시점 3				
성격부성																	
개발성	1.00																
성실성	.13**	1.00															
외향성	.42**	.16**	1.00														
친화성	.01	.01	.08*	1.00													
신경성	-.09*	-.11**	-.15**	-.25**	1.00												
예측																	
예측불안	-.14**	-.07	-.23**	-.11**	.28**	1.00											
예측회피	-.21**	-.15**	-.46**	-.05	.58**	1.00											
온라인 자기개방																	
A시점_1	.05	.07	.12**	.01	.05	-.04	-.20**	1.00									
A시점_2	.01	.03	.06	.03	-.07	-.07	-.19**	.33**	1.00								
A시점_3	.07	.11	.09	.01	-.02	-.09	-.21**	.20**	.36**	1.00							
C시점_1	.01	.07	.05	.02	-.01	-.11**	-.01	.53**	.04	.11	1.00						
C시점_2	.04	.04	.03	.01	-.01	-.04	-.03	.11*	.24**	.12	.28**	1.00					
C시점_3	.02	.03	.00	.02	-.09	-.05	-.01	.09	.18**	.21**	.25**	.37**	1.00				
가족친밀감																	
A영역 관계의 질	.11	.06	.19**	.02	-.04	-.16**	-.28**	.08	.13*	.19**	.05	.09	.04	1.00			
C영역 관계의 질	.05	.09	.18**	.01	-.04	-.25**	-.32**	.17**	.19**	.41**	.06	.07	.12*	.21**	1.00		
C영역 관계의 질																	
A영역 관계의 질	.01	.09	.05	.00	-.12*	-.01	-.07	.05	.06	.16	.30**	.33**	.66**	.06	.15**	1.00	
C영역 관계의 질	.01	.09	.05	.00	-.12*	-.01	-.07	.05	.06	.16	.30**	.33**	.66**	.06	.15**	1.00	
평균	9.52	8.95	8.74	8.31	8.77	60.63	61.60	21.08	22.31	23.37	15.65	15.14	15.68	7.87	24.67	16.93	
표준편차	2.41	2.01	2.84	2.30	2.42	17.39	13.16	6.12	6.70	6.60	5.80	5.60	5.33	2.24	3.80	4.59	
왜도	-.16	-.22	-.14	.17	-.24	.09	.08	.00	-.25	-.31	.83	.98	.74	.11	-.14	-.73	
첨도	-.43	.09	-.53	-.31	-.12	-.35	-.09	-.19	-.33	-.07	.23	.77	.22	-.47	1.84	.91	

* $p < .05$, ** $p < .01$

상관을 보였고, $r=.13, p<.05, r=.19, p<.01$,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시점 1, 2, 3은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r=.17, r=.19, r=.41, p<.01$,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과 관계의 질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06, r=.06, r=.16, ns.$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모형 검증

연구가설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청소년의 A영역(가까운 대상)과 C영역(단순지인)에서 온라인 자기개방의 종단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무변화모형이나 선형변화모형은 측정 시점이 3시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 4시점 이상인 경우에는 고차함수모형까지 추정하여야 하나, 청소년의 가까운 대상과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의 측정 시점은 3시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형변화모형까지를 추정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결과 청소년의 A영역(가까운 대상) 온라인 자기개방에 대한 무변화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영가설을 채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형은 좋은 편이 아니었다. $\chi^2(4)=22.22, p=.00, CFI=.76,$

$TLI=.63, NFI=.72, RMSEA=.08$. 하지만 표 2의 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영가설을 채택할 수 있었고, 모형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35, p=.55, CFI=.99, TLI=.99, NFI=.99, RMSEA=.01$. 그리고 선형변화모형의 χ^2 값은 무변화모형의 χ^2 값에 비해 22.87 감소하였고, 자유도는 3 낮았다. 자유도가 1 감소함에 따라 χ^2 는 3.84 이상 감소해야 하는데, 선형변화모형은 자유도가 3 낮아졌기 때문에 χ^2 값이 7.81 이상 감소해야 우수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Delta\chi^2=22.87>\chi^2_{.05}(3)=7.81, \Delta df=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청소년의 C영역(단순지인) 온라인 자기개방에 대한 무변화모형의 적합도 지수 또한 영가설을 채택할 수 없었고, 모형은 양호하지 않았다. $\chi^2(4)=19.30, p=.00, CFI=.79, TLI=.69, NFI=.76, RMSEA=.07$. 하지만 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영가설을 채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chi^2(1)=.58, p=.45, CFI=.99, TLI=.99, NFI=.99, RMSEA=.01$. 또한 선형변화모형의 χ^2 값이 무변화모형의 χ^2 값에 비해 18.72 감소하였고, 자유도는 3 낮았기 때문에, $\Delta\chi^2=18.72>\chi^2_{.05}(3)=7.81, \Delta df=3$, 우수한 모

표 2. 친밀도에 따른 청소년의 온라인 자기개방 모형분석 결과

온라인 자기개방	모형	$\chi^2(df)$	CFI	TLI	NFI	RESEA	초기치		변화율	
							평균	분산	평균	분산
A영역	무변화모형	22.22(4), p=.00	.76	.63	.72	.08	22.16***	.83***		
	선형변화모형	.35(1), p=.55	.99	.99	.99	.01	21.08***	1.83*	1.23***	.27*
C영역	무변화모형	19.30(4), p=.00	.79	.69	.76	.07	15.49***	.70***		
	선형변화모형	.58(1), p=.45	.99	.99	.99	.01	15.65***	1.95**	.51*	.44+*

+ $p<.10, *$ $p<.05, ***$ $p<.001$

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친밀도에 따른 온라인의 가까운 대상과 단순지인에서의 자기 개방이 시간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하는 잠재성장모형을 채택할 수 있고,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하기 때문에 온라인 자기 개방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 검증

먼저 선형모형 분석을 통하여 평균 A영역(가까운 지인) 온라인 자기 개방의 초기값(intercept)과 기울기(slope)를 구하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A영역(가까운 대상) 온라인 자기 개방이 선형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잠재성장모형에서 초기 값이 1

로 고정된 것은 초기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기울기는 선형적 변화를 가정하기 때문에 일정 한 간격인 0, 1, 2로 변화하도록 지정하였다. 0으로 시작한 것은 보통 초기수준에는 성장이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온라인 자기 개방 A영역(가까운 대상)에서 연구가설 모형을 검증한 결과, 그림 2의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에서처럼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7) = 13.59, p = .26, CFI = .99, TLI = .98, NFI = .99, RMSEA = .02$.

표 4에서 A영역(가까운 대상) 잠재성장모형을 추정 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성격특성 중 개방성만이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자기 개방 초기치와 변화량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beta = .17, p < .05; \beta = .31, p < .01$, 성격특성 중 개방성만이 가설 1을 지지하였다. 애착불안은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자기 개방 초기치에 부적 영향을 미쳤지만, 변화량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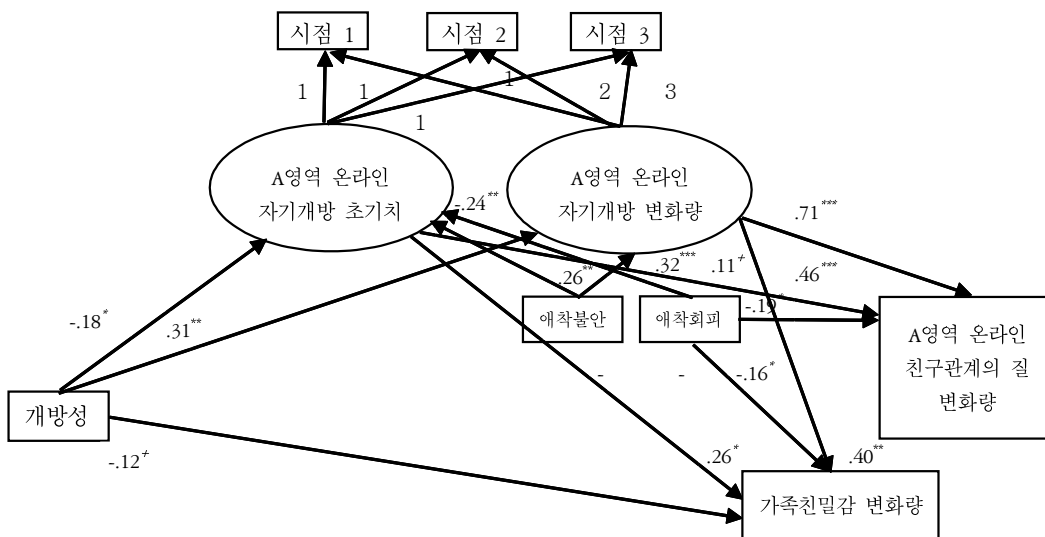


그림 2. A영역(가까운 대상) 온라인 자기 개방 잠재성장모형 검증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3. A영역(가까운 대상) 온라인 자기개방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χ^2	CFI	TLI	NFI	RMSEA
13.59($df=17$), $p=.26$.99	.98	.99	.02

표 4. A영역(가까운 대상) 온라인 자기개방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최대우도 모수 추정치

모수	B	SE	β	t	p
개방성 → 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11	.05	.17	2.33	.020
개방성 → 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07	.02	.31	3.15	.002
성실성 → 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07	.05	.09	1.31	.190
성실성 → 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01	.03	.02	.24	.807
외향성 → 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01	.05	.02	.20	.842
외향성 → 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01	.02	.05	.47	.638
친화성 → 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02	.05	.03	.42	.677
친화성 → 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00	.02	.01	.08	.935
신경성 → 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01	-.05	-.02	-.32	.753
신경성 → 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01	.02	.02	.23	.815
애착불안 → 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02	.01	-.24	-2.63	.009
애착불안 → 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01	.00	.26	2.20	.028
애착회피 → 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04	.01	.33	3.31	.000
애착회피 → 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01	.01	-.11	.88	.377
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 가족친밀감	.41	.18	.26	2.21	.027
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 가족친밀감	1.56	.53	.40	2.94	.003
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 A영역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1.22	.36	.46	3.41	.000
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 A영역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4.76	1.37	.71	3.49	.000
개방성 → 가족친밀감	.11	.06	.12	1.72	.085
성실성 → 가족친밀감	.05	.07	.04	.71	.478
외향성 → 가족친밀감	.06	.06	.08	1.14	.256
친화성 → 가족친밀감	.02	.06	.02	.75	.753
신경성 → 가족친밀감	-.05	.06	-.05	-.88	.377
개방성 → A영역 온라인 친구 관계의 질	.19	.13	.12	1.54	.124
성실성 → A영역 온라인 친구 관계의 질	.06	.11	.03	.51	.612
외향성 → A영역 온라인 친구 관계의 질	.04	.10	.03	.37	.714
친화성 → A영역 온라인 친구 관계의 질	.11	.10	.07	1.18	.239
신경성 → A영역 온라인 친구 관계의 질	-.03	.10	-.02	-.28	.777
애착불안 → 가족친밀감	.01	.01	.05	.66	.512
애착회피 → 가족친밀감	-.03	.01	-.16	-1.87	.062
애착불안 → A영역 온라인 친구 관계의 질	-.00	.02	-.00	-.05	.964
애착회피 → A영역 온라인 친구 관계의 질	-.06	.03	-.19	-2.18	.029

$=-.24, p<.01$; $\beta=.26, p<.05$. 애착회피는 초기치에서만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3, p<.001$. 즉, 애착회피가 친밀도에 따른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가설 3을 지지하였다.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와 변화량은 가족친밀감 변화량, $\beta=.26, p<.05$; $\beta=.40, p<.01$ 과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eta=.46, \beta=.71, p<.001$. 즉, 가설 5와 6을 지지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성격특성 중에서 개방성만이 가족친밀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beta=.12, p<.10$, 청소년의 성격특성은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성격특성 중 개방성만 가족친밀감 변화량에서 가설 2를 지지하였다. 애착불안은 가족친밀감 변화량과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애착회피는 가족친밀감 변화량과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beta=-.16, p<.10$; $\beta=-.19, p<.05$. 즉, 애착회피만이 가설 4를 지지하였다.

신뢰구간 범위를 통해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 분석결과, 개방성→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가족친밀감 변화량 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경로는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방성→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가족친밀감 변화량 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경로의 신뢰구간범위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와 변화량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즉, 개방성이 가족친밀감 변화량에 미친 영향에 대한 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의 매개효과

를 제외한 개방성의 나머지 경로에서는 가설 7이 지지되었다. 또한 애착회피 경로에서 A영역의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을 제외한 초기치와 애착불안 경로는 가설 8을 지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의 변화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청소년의 개방성이 가족친밀감 변화량에 영향을 미칠 때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는 매개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방적인 청소년은 온라인에서 친한 친구와 자기개방이 증가할수록 가족친밀감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청소년의 개방성이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에 영향을 미칠 때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와 변화량이 모두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적인 청소년은 친한 친구와의 온라인 자기개방이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쳤고, 청소년의 친한 친구와의 온라인에서 자기개방이 증가할수록 친한 친구와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이 높았다.

청소년의 애착불안이 가족친밀감 변화량에 영향을 미칠 때,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와 변화량은 모두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애착불안은 친한 친구와의 온라인 자기개방이 가족친밀감을 감소시켰지만, 친한 친구와의 온라인 자기개방이 증가할수록 가족친밀감 변화량을 증진시켰다. 반면에 청소년의 애착회피는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를 매개로 가족친밀감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변화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중단적인 변화를 탐색할 수

표 5. A영역(가까운 대상) 온라인 자기개방의 잠재성장모형 매개효과 Bootstrap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Bias-corrected Bootstrapping Lo Hi
	β	SE	β	SE	β	SE	
개방성→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 가족친밀감 변화량	.066	.015	-.039	.015	.027	.030	(.000, .026)
개방성→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 A영역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	.061	.009	-.043	.009	.018	.009	(.001, .089)
개방성→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 가족친밀감 변화량	.044	.084	-.026	.096	.018	.009	(.016, .026)
개방성→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 A영역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	.068	.016	-.048	.271	.020	.016	(.064, .089)
애착불안→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 가족친밀감 변화량	.019	.008	-.021	.024	-.002	.005	(.001, .002)
애착불안→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 A영역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	-.041	.271	.026	.009	-.015	.009	(.001, .004)
애착불안→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 가족친밀감 변화량	.002	.009	-.002	.096	.000	.009	(.014, .031)
애착불안→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 A영역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	-.007	.016	-.004	.005	-.011	.016	(.001, .060)
애착회피→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 가족친밀감 변화량	-.125	.005	-.021	.008	-.146	.008	(-.043, -.014)
애착회피→A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 A영역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	-.073	.009	-.065	.009	-.138	.009	(-.078, -.003)

없었다.

또한 청소년의 애착불안이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에 영향을 미칠 때,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와 변화량이 모두 매개하였다. 즉, 청소년의 애착불안은 친한 친구와의 온라인 자기개방이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친한 친구와의 온라인 자기개방이 증가할수록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청소년의 애착회피는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만이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에 영향을 미칠 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단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평균 C영역(단순지인)의 온라인 자기개방은 선형 잠재성장모형에 의해 예측되었다. 하지만 실제 자료에서는 2시점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비선형 잠재성장모형을 추가로 고

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균 C영역(단순지인) 온라인 자기개방의 초기값과 기울기에 2차항(quadratic term)을 추가하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C영역(단순지인) 온라인 자기개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자기개방과 비교하여 C영역 단순지인에 대한 온라인 자기개방 연구 가설 모형을 검증한 결과, 그림 3의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7)=11.91, p=.37, CFI=.99, TLI=.99, NFI=.99, RMSEA=.01$. C영역(단순지인) 잠재성장모형을 추정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살펴본 표 7의 결과는 A영역(가까운 대상) 잠재성장모형과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의 성격특성은 모두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신경성만이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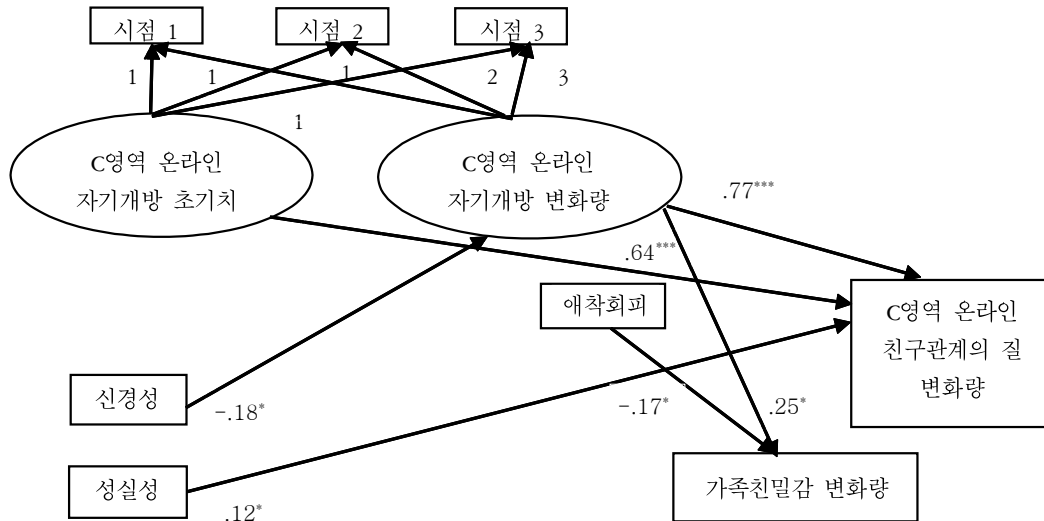


그림 3. C영역(단순지인) 온라인 자기개방 잠재성장모형 검증

(* $p < .05$, *** $p < .001$)

표 6. C영역(단순지인) 온라인 자기개방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χ^2	CFI	TLI	NFI	RMSEA
11.91($df=17$), $p=.37$.99	.99	.99	.01

자기개방 변화량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beta = -.18$, $p < .05$, 이는 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와 변화량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는 가족친밀감 변화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변화량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eta = .25$, $p < .05$.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에는 초기치와 변화량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eta = .64$, $\beta = .77$, $p < .001$. 즉, 가족친밀감 변화량에 대한 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영향인 가설 5는 지지되지 않았고, 변화량의 영향

인 가설 6은 지지되었다. 반면에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에는 가설 5와 6이 모두 지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청소년의 성격특성은 성실성이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beta = .12$, $p < .05$. 즉, 성격특성 중 성실성만이 친구관계의 변화에서 가설 2를 지지하였다. 애착회피가 가족친밀감 변화량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 $\beta = -.17$, $p < .05$, 모두 가족친밀감 변화량과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애착회피만이 가족친밀감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4를 지지하였다.

청소년의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에

표 7. C영역(단순지인) 온라인 자기개방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최대우도 모수 추정치

모수	B	SE	β	t	p
개방성 → 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03	.04	.04	.62	.538
개방성 → 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02	.02	.07	.92	.358
성실성 → 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06	.05	.08	1.22	.224
성실성 → 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02	.03	.04	.57	.567
외향성 → 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02	.04	.04	.44	.660
외향성 → 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01	.02	.05	.54	.592
친화성 → 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04	.04	.06	.87	.385
친화성 → 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01	.02	.03	.43	.665
신경성 → 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03	.04	-.05	-.74	.457
신경성 → 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05	.02	-.18	-2.46	.014
애착불안 → 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01	.01	.14	1.62	.105
애착불안 → 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00	.00	.01	.07	.942
애착회피 → 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01	.01	-.08	-.79	.428
애착회피 → 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01	.01	-.09	-.87	.383
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 가족친밀감	.24	.18	.16	1.31	.189
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 가족친밀감	.81	.34	.25	2.33	.020
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초기치 → C영역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2.00	.38	.64	5.30	.000
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 C영역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4.98	.85	.77	5.88	.000
개방성 → 가족친밀감	.03	.05	.04	.74	.462
성실성 → 가족친밀감	.06	.06	.05	.91	.362
외향성 → 가족친밀감	.07	.05	.09	1.33	.184
친화성 → 가족친밀감	.01	.05	.01	.16	.872
신경성 → 가족친밀감	-.01	.06	-.01	-.11	.915
개방성 → C영역 온라인 친구 관계의 질	.00	.11	.00	.00	.998
성실성 → C영역 온라인 친구 관계의 질	.28	.12	.12	2.28	.023
외향성 → C영역 온라인 친구 관계의 질	.05	.10	.03	.44	.660
친화성 → C영역 온라인 친구 관계의 질	.08	.11	.04	.80	.425
신경성 → C영역 온라인 친구 관계의 질	-.14	.11	-.08	-1.27	.203
애착불안 → 가족친밀감	-.00	.01	-.01	-.13	.897
애착회피 → 가족친밀감	-.03	.01	-.17	-2.19	.029
애착불안 → C영역 온라인 친구 관계의 질	.02	.02	.07	1.01	.313
애착회피 → C영역 온라인 친구 관계의 질	-.01	.03	-.01	-.19	.852

서는 초기치와 변화량의 종단적인 변화에 대한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어려웠다. 단지 부트스트래핑 분석결과, 신경성→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가족친밀감 변화량 경로와 신

표 8. C영역(단순지인) 온라인 자기개방의 잠재성장모형 매개효과 Bootstrap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Bias-corrected Bootstrapping Lo Hi
	β	SE	β	SE	β	SE	
	신경성→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 가족친밀감 변화량	.016	.052	.010	.080	.026	.029
신경성→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 → C영역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	.009	.052	.109	.247	.118	.824	(.012, .174)

경성→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C영역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 경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도 수준 .01에서 간접효과를 보였고, 2개 경로에서 신뢰구간범위가 0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C영역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의 매개효과만을 나타냈다. 가설 7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신경증적인 청소년은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 변화량을 매개로 가족친밀감 변화량과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경증적인 청소년은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이 가족친밀감이나 온라인 관계의 질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이 증가할수록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발달특징인 상상의 청중이 청소년의 온라인에서 전자적 자기를 활성화시켜 가족과 친구관계의 질에 변화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은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의 활발한 자기개방을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청소년기

개인의 발달과업을 달성해나가는 건강한 발달 특성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가족관계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650명을 대상으로 친밀도에 따른 온라인 자기개방을 2년간 종단추적하였다. 연구결과, 친밀도에 따른 온라인 자기개방은 2011년 12월 시점 1에서 측정된 값이 2013년 2월 시점 3에서 변화를 보이는 선형변화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그림 1의 연구가설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애착이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그림 2 A영역(가까운 대상) 온라인 자기개방 연구가설모형에서는 청소년의 개방성은 가족친밀감 변화량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애착회피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청소년의 성격특성은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애착회피는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림 3 C영역(단순지인) 온라인 자기개방 연구가설모형에서는 청소년의 성격특성은 가족친밀감 변화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애착회피만이 가족친밀감 변화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계획된 행동을 잘 수행하고 매사 조직화를 잘하는 청소년의 성실성은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애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그림 2의 연구가설모형검증에서는 청소년의 개방성이 가족친밀감 증진과 애착회피가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그림 3의 연구가설모형검증에서는 청소년의 성실성만이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와 애착회피가 가족친밀감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성격특성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영란(2005)과 White, Hendrick과 Hendrick(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조영란(2005)과 White, Hendrick과 Hendrick(2004)은 청소년의 신경증은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및 친화성은 주관적 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개방적인 청소년은 가족친밀감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실하게 계획된 행동을 잘 조직화하는 청소년은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친구와의 관계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를 잘 개방하는 청소년일수록 오프라인에서 가족과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며, 청소년의 성실성은 낯선 타인과의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하지만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외향성이 가족과 온라인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더 심도있게 탐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애착불안은 가족친밀감과 가까운 대상이나 단순지인과의 온

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가까운 대상과 온라인 자기개방을 많이 하는 청소년이건 혹은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을 많이 하는 청소년이건 간에, 청소년의 애착회피는 가족친밀감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애착회피가 애착불안보다 친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Tidwell, Reis와 Shaver(1996)의 연구를 지지한다.

둘째,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애착이 가까운 대상과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방적이고 애착불안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을 증진시켰고, 신경증적인 청소년은 처음에 온라인에서 낯선 타인과의 자기개방을 꺼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에서 자기개방을 많이 하였다. 본 연구의 종단적인 변화는 Rice와 Markey(2008)가 외향적이고 낮은 신경증을 보이는 청소년이 온라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친밀도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개방적인 청소년은 친한 친구와의 온라인 자기개방을 촉진시켰지만, 신경증적인 청소년은 낯선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에서 성격특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애착불안만이 가까운 대상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을 높이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자기개방에 차이를 보인다는 박선주(2010), Fraley와 Waller(1998), Keelan, Dion과 Dion(1998) 및 Mikulincer와 Nachshon(199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Baumeister & Leary, 1995; Brennan, Clark, &

Shaver, 1998; Fraley & Waller, 1998; Mikulincer, 1998; Waters, & Wall, 1979)이 애착이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연구해왔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전통적인 대인관계 상황, 즉 면대면 의사소통 상황만을 살펴봤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애착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온라인에서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다르게 발현된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닌다.

셋째, 청소년의 온라인 자기개방의 종단적 변화가 가족친밀감과 가까운 대상과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친한 친구와의 온라인에서 자기개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친밀감을 증진시켰고, 친한 친구와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낯선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은 초기에 가족친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낯선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이 증가할수록 점점 가족친밀감이 높아졌고, 낯선 타인과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도 증진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자기개방이 친밀감 발달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박성복, 황하성, 2007; Laurenceau, Barrett, & Pietromonaco, 1998; Manne et al., 2004; Sprecher & Hendrick, 2004)과 온라인 자기개방이 사회적 친밀감을 증진시킨다는 Ko와 Kuo(2009)와 Lee, Lee와 Kwon(2011)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이 친한 친구나 혹은 낯선 타인과 온라인 자기개방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온라인 친구관계는 물론이고 가족관계를 증진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가 친한 친구와의 자기개방과 낯선 타인과

의 자기개방에 차이를 보이고, 낯선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이 증가할수록 낯선 타인과의 온라인 관계의 질은 높아지지만, 가족관계의 질은 떨어졌다면, 청소년의 온라인 자기개방이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요인(Ledbetter 외, 2010)임을 입증하는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청소년이 또래와의 강한 유대감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Ledbetter 외, 2010), 청소년기 가족문제를 낳게 된다는 관점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활발한 온라인 자기개방은 건강한 청소년의 발달단계 특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온라인 자기개방이 가상공간 속에서 상상의 청중을 형성함(Galanaki, 2012)과 동시에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킴으로서, 청소년기 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격 특성과 애착이 가족친밀감과 친구관계의 질 변화에 영향을 미칠 때, 가까운 대상과 단순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의 종단적 변화가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개방적인 청소년은 친한 친구와의 온라인 자기개방이 증가할수록 가족친밀감과 친한 친구와의 온라인 관계의 질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둘째, 청소년의 애착불안은 친한 친구와의 온라인 자기개방이 증가할수록 가족친밀감의 변화를 감소시켰고, 친한 친구와의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셋째, 청소년의 애착회피는 초기 친한 친구와의 온라인 자기개방이 가족친밀감과 친한 친구와의 온라인 관계의 질에 부정적인 변화를 보였지만, 친한 친구와의 온라인 자기개방이 증가할수록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가족친밀감

과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의 변화에 다른 경로를 보임으로써,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이 관계 유지행동을 더 촉진시켜 불안을 감소시키려고 한다는 선행연구들(박선주, 2010; Keelan, Dion, & Dion, 1998; Mikulincer & Nachshon, 1991; Tidwell, Reis, & Shaver, 1996)을 지지하였다. 넷째, 신경증적인 청소년은 초기 낯선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이 가족친밀감과 낯선 타인과의 온라인 관계의 질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낯선 타인과의 온라인 자기개방이 증가할수록 가족친밀감과 낯선 타인과의 온라인 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연구결과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타인의 반응에 예민하며 늘 긴장해 있는 신경증적인 청소년의 낯선 친구들과의 지속적인 온라인 자기개방이 친구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임으로써, 신경증이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영란(2005)과 White, Hendrick과 Hendrick(2004)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조영란과 White 등(2004)의 연구결과는 오프라인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대인관계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Pederson과 Hisbee(1968)와 임평규(2001)는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외향적인 사람보다 내향적인 사람이 더 많이 자기를 노출한다고 하였다. Rice와 Markey(2008)도 내향적이고 신경증적인 사람은 온라인 상호작용보다 오프라인 상호작용에서 더 불안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이런 상반된 결과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호작용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의 가상공간은 오프라인보다 직접적인 면대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익명성으로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가상의 보호망 속에서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내향적이고

신경증적인 청소년의 자기노출을 더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내성적이고 신경증적인 청소년은 온라인에서 초기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더 많이 노출하여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표본표집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2년간의 종단 추적이 청소년의 온라인 가족의사소통을 충분히 탐색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므로,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적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6개월 단위로 종단추적을 할 예정이었으나, 고등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라 학기 초에 혹은 학기 말에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6개월 단위로 조사된 것이지만 시점 2는 9개월 간격이 되었고, 시점 3은 5개월 간격이 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청소년 표본의 일반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지역분포를 고려하였을지라도,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보기에는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다는 단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 변화하는 가족관계 속에서 가족개념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가장 희박한 시기인 청소년기 온라인 상호작용을 종단 추적해봄으로써, 첫째 청소년 가족연구의 영역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하였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둘째, 청소년 온라인 의사소통에 대한 종단 연구는 기존의 횡단연구에서는 탐색하기 어려운 의사소통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적인 청소년의 성격 특성이 가족관계와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 것 외에도, 신경증적인 청소년이 낯선 타인과의 지속적인 온라인 자

기개방을 통해 긍정적인 대인관계로 변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조영란, 2005; White, Hendrick, & Hendrick, 2004)는 결과를 반증하였다. 또한 애착회피가 강한 사람이 대인간 친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애착불안이 강한 사람이 관계유지행동을 촉진시켜 대인간 친밀감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가정한 오프라인 실험연구(박선주, 2010; Brennan, Clark, & Shaver, 1998; Fraley & Waller, 1998; Keelan, Dion, & Dion, 1998; Mikulincer & Nachshon, 1991; Tidwell, Reis, & Shaver, 1996)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이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청소년의 애착불안은 친한 친구와의 지속적인 온라인 자기개방을 통해 부정적인 가족과 친구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기 온라인 의사소통을 다루어봄으로서, 청소년 가족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해보았다는데 그 의의를 지닌다. 청소년의 또래영역과의 긴밀한 유대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청소년기 가족의 문제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달성하고,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여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유대보다는 또래 친구와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 또래친구들과의 유대와 또래영역의 문화는 가족체계와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심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가족과 친한 친구들에게 온라인 자기개방을 많이 할수록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친구관계가 증진된다는 결과를 통해서,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의 또래친구들과의 어울

림을 걱정스럽게 우려하기 보다는 청소년기 자녀의 건강한 발달의 한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해준다.

지금 청소년 자녀는 또래친구문화에 젖어서 가족체계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아정체감을 확립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구본용, 유제민 (2005). 성격 및 환경요인과 행복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6(1), 1-7.
- 권석만 (2004).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미숙, 장화경, 홍미 (2006). 정보화로 인한 가족계와 가족역할의 미래변화: 미래 가족의 정서 기능 변화망.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성현 (2004). 친밀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길, 박수호 (2010). 디지털시대의 가족혁명: 신화인가? 현실인가? *사회이론, 가을/겨울*, 143-281.
- 남순현 (2001).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 성인자녀가족과 3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순현, 권정혜 (2015).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자기개방이 가족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온·오프라인 교류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2), 353-374.
- 박선주 (2010). 회피애착과 전문적 도움추구의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성복, 황하성 (2007).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

- 기노출, 친밀감, 공동 공간감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51(6), 469-494.
- 박지선 (2008). 애착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현숙 (201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서경현, 김정호, 유제민 (2009). 성격과 주관적 웰빙간의 관계: Big 5 성격요인과 BAS/BIS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69-186.
- 신현진 (2005). 내외향성 블로그 사용 및 블로그에서의 자기개방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계숙 (1995). 성인 딸과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78-85.
- 유영주, 김순옥, 김경신 (1983).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이재룡 (1996). 교사의 자기노출과 교사-학생간의 인간관계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해영, 이여봉 (2001). 이메일 활용과 가족 관계. *가족과 문화*, 13(2), 107-135.
- 임평규 (2001). 현실과 사이버의 맥락에 따른 자기노출의 차이: 성격특성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유희, 구철모, 정남호, 이대용 (20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친밀감 발달과정에 대한 실증연구: 온라인정체성 표현욕구와 지각된 파트너 반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술대회 2012년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575-581.
- 조영란 (2005). 5요인 성격특성과 대인관계 성향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성란 (2005). 가족원들의 온라인을 이용한 의사소통 실태에 관한 연구. *자연과학*, 15(2), 71-93.
- 차성란, 문숙재, 정영금, 정지영 (2003). *정보화 사회에서의 가족과 생활정보*. 서울: 시그마프레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2014 게임이용자 조사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종혜 (1994).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 존중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주리, 허경호 (2005). 가족 의사소통 패턴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노출, 내적 통제성 및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49(5), 202~227.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9).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Alberts, A., Elkind, D., & Ginsberg, S. (2007). The personal fable and risk-taking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1), 71-76.
- Anderson, C., John, O., Keltner, D., & Kring, A. M. (2001). Who attains social status? Effects of personality and physical attractiveness in social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81, 116-132.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elsky, J., Jaffee, S. R., Caspi, A., Moffitt, T., & Silva, P. A. (2003).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in young adulthood and their life course, mental health, and personality correlat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4), 460-471.
- Bowlby, J. (1953). *Child care and the growth of love*. London: Penguin Books.
- Bowlby, J. (1976).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Volume 2 (Attachment and Loss Vol 2)*. United States: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ed int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NY: Guilford Press.
- Costa, P. T., McCrae, R. R., & Zonderman, A. B. (1987). Environmental and dispositional influences on well-being: Longitudinal follow-up of an American national sampl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78, 299-306.
- DeVito, J. A. (2005). *Essentials of human communication*(3rd ed).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 Diener, E., & Lucas, R. E. (1999).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tz.(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 213-229). Cambridge, MA: MIT Press.
- Duncan, S. C., Duncan, S. C., & Stryker, L. A. (2006).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Mahwah, NJ: Erlbaum.
- Duncan, S. C., Duncan, T. E., & Alpert, A. (1999). Alcohol use among African American and White Siblings: A multilevel latent growth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Gender, Culture, and Health* 3(4), 209-225.
- Elkind, D. (1967). Egocentrism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38, 1025-1034.
- Fraley, R. C., & Waller, N. G. (1998). Adult attachment patterns: A test of the typological model. In J. A. Simpson & W. 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77-114). New York: Guilford Press.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Galanaki, E. P. (2012). The imaginary audience and the personal fable: A test of Elkind's theory of adolescent egocentrism. *Psychology*, 3(6), 457-466.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16-1229.
- Hudson, W. W., Acklin, J. D., & Bartosh, J. C. (1980). Assessing discord in family relationships,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21-29.
- Jacobson, D. (1999). Impression Formation in Cyberspace: Online Expectations and Offline Experiences in Text-Based Virtual Communiti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5(1), 0-0.
- Keelan, J. P., Dion, K. K., & Dion, K. L. (1998). Attachment styl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Test of a self-disclosure explanation.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0, 24-35.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Guilford Press.
- Knudson, R. M., Sommers, A. A., & Golding, S. L. (1980). Interpersonal perception and mode of resolution in marital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5), 751-763.
- Ko, H., & Kuo, F. (2009). Can blogging enhance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self-disclosure?. *Cyber Psychology & Behavior*, 12(1), 75-79.
- Larsen, R. J., & Buss, D. M. (2010). *Personality Psychology: Domains of Knowledge About Human Nature*. New York: McGraw-Hill.
- Laurenceau, J. P., Barrett, L. F., & Pietromonaco, P. R. (199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the importance of self-disclosure, partner disclosure, and perceived partner responsiveness in interpersonal exchan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238-1251.
- Ledbetter, A. M., Heiss, S., Sibal, K., Lev, E., Battle-Fisher, M., & Shubert, N. (2010). Parental invasive and children's defensive behaviors at home and away at college: Mediated communication and privacy boundary management. *Communication Studies*, 61, 184-204.
- Lee, G., Lee, J., & Kwon, S. (2011). Use of social-networking sites and subjective well-being: A study in South Korea. *Cyber 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3), 151-155.
- Manne, S., Ostroff, J., Rini, C., Fox, K., Goldstein, L., & Grana, G. (2004). The interpersonal process model of intimacy: the role of self-disclosure, partner disclosure, and partner responsiveness in interactions between breast cancer patients and their partn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 589-599.
- McCrae, R. R., & Costa, P. T., Jr. (1999). A five-factor theory of personality. In L. Pervin & O. P. John(Eds.), *Handbook of personality* (pp. 139-153). NY: Guilford.
- Mikulincer, M., & Nachshon, O. (1991). Attachment styles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321-331.
- Mikulincer, M. (1998).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the sense of trust: An exploration of interaction goals and affect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209-1224.
- Mortier, J. T., Lorence, J., & Kumka, D. (1986). *Work, family, and personality: Transition to*

- adulthood*. Norwood, NJ: Ablex.
- Patton, D., & Waring, E. M. (1984). The quality and quantity of marital intimacy in the marriages of psychic patients.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0*(3), 201-206.
- Pederson, D. M., & Hisbee, K. L. (1968). Personality correlate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8*, 291-278.
- Pervin, L. A., Daniel, D. C., & Oliver P. J. (2005).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Wiley.
- Peter, J., & Valkenburg, P. M (2006). Research note: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internet communicatio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1*, 213-226.
- Rammstedt, B. (2007). The 10-Item Big Five Inventory: Norm Values and Investigation of Sociodemographic Effects Based on a German Population Representative Sample. Center for Survey Research and Methodology(ZUMA), Mannheim, German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3*(3), 193-201.
- Rammstedt, B., & John, O. (2007). Measuring personality in one minute or less: A 10-item short version of the Big Five Inventory in English and Germa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 203-212.
- Rice, L., & Markey, P. M. (2008). The rol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in influencing anxiety following computer-mediated interac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 35-39.
- Robert, B. W., & Del Vecchio, W. F. (2000). The rank-order consistency of personality traits from childhood to old age: A quantitative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26*(1), 3-25.
- Rudolph, K. D., Hammen, C., Burge, D., Lindberg, N., Herzberg, D., & Daley, S. E. (2000). Toward an interpersonal life-stress model of depression: The developmental context of stress gener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215-234.
- Russell, D. W., Kahn, J. H.,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precher, S., & Hendrick, S. S. (2004). Self-disclosure in intimate relationships: Associations with individual and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ver tim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857-877.
- Tidwell, M. O, Reis, H. T, & Shaver, P. R. (1996). Attachment, attractiveness, and social interaction: a diary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729-745.
- Triandis, H. C., & Suh. E. M. (2002). Cultural influences on personal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133-160.
- White, J. K., Hendrick, S. S., & Hendrick, C. (2004). Big five personality variables and relationship construc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 1519-1530.
- Zhou, W. X., Sornette, D., Hill, R. A., Dunbar, R. I. M. (2005). Discrete hierarchical

남순현 / 청소년의 성격, 애착, 온라인 자기개방,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간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 분석

organization of social group sizes.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272, 439-444.

1차원고접수 : 2015. 10. 09.

수정원고접수 : 2015. 12. 04.

최종게재결정 : 2015. 12. 09.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ttachment,
online self-disclosure, and quality of family and
online peer relation among adolescents:
Using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Nam, Soonhyeon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650 adolescents' online self-disclosure on the association between personality traits, attachment, and changes to family and online peer relationships. Longitudinal data were collected, end-to-end, in three sessions over a 6-month (on average) period from December 2011 to February 2013.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nalyses conducted in AMOS 20.0 were used. As a result, for Group A (friends) of online self-disclosure, it examined not only the direct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s' openness and changes to family intimacy, as well as an indirect effect on changes to online friendships. Attachment anxiety manifested positive changes to family and online peer relationships through continual online self-disclosure with close peers. However, attachment avoidance predicted a negative effect on changes to family intimacy and online friendships. For Group C (distant acquaintances) in terms of online self-disclosure, adolescents' neuroticism positively predicted changes to family intimacy and online relationship quality if online self-disclosure was continuous. Furthermore, adolescents' conscientiousness directly affected changes to online friendship quality. However, attachment avoidance negatively affected changes to family intimacy. These results counter previous studies claiming that a strong affinity for peers aggravates parent-child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Instead, the present findings indicate that adolescents' online communication can positively affect family conflicts, suggesting that active online self-disclosure is beneficial to both family and online peer relationships.

Key words :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dolescent family, Big Five Model, attachment, online self-disclosure, family intimacy, quality of online peer relationship, longitudinal study